

Universal Design for Communication Support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im Janghyun[†] (Konyang University)

Abstract

In this study, a communication support plan considering universal design was explor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experience difficulties in social life and academic participation due to difficulty in communication. The communication support plan applying universal design can be a useful support plan not only for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ut also for infants and foreigners with difficulty in literacy. As for the communication support plan applying universal design, two approaches should be taken at the same time: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the parties with communication difficulties and lowering social communication barriers. Therefore, in this study, 4 aspects of universal design for communication support for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1) universal design for communication rights improvement, 2) universal design for community participation, 3) universal design for communication participation in instruction, and 4) universal design for promoting disability empathy culture were discussed.

Keywords : *Universal design.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 Correspondence : Lim Janghyun, Konyang University, limjh@uu.ac.kr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임장현† (건양대학교, 조교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사회생활 및 학업참여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한 의사소통 지원방안을 탐색하였다.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의사소통 지원방안은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문해력에 어려움을 가진 유아나 외국인들에게도 유용한 지원 방안이 될 수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의사소통 지원방안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당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사회적인 의사소통 장벽을 낮추는 두 가지 접근 방안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으로서 4가지 측면, 1) 의사소통 권리 향상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2)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3) 수업에서 의사소통 참여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4) 장애공감 문화 증진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영역에서의 적용과 실제에 대해 논하였다.

주요어: 유니버설디자인, 보완대체의사소통, 발달장애

† 교신저자: 임장현, 건양대학교, limjh@uu.ac.kr

■ 투고일: 2022. 07. 28, 수정본 접수일: 2022. 08. 25, 게재 승인일: 2022. 08. 27

I. 서론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 2조 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발달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발달 시기 동안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사회 환경 자극이 제한되어 자립생활과 사회 적응 및 참여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여가 활동 등을 통해 또래와 상호작용할 기회가 제한되며, 대화를 통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비장애인들은 가정 이외의 환경인 지역사회 내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생활하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제공되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가족 외의 환경과 교류하고 접촉하는데 많은 제한과 어려움을 겪는다(황보옥, 이선자, 2012).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된 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타인과의 평등한 관계를 정립하기 어렵고 자립심과 자기를 옹호하는 능력 증진도 제한된다(황승욱, 2014). 또한 장애인의 의사소통 어려움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문제행동과 사회부적응 등을 유발할 수 있다(박정애, 박은혜, 2020).

발달장애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자립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회참여 기술을 습득해야 하며, 나이에 맞는 사회적 환경,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적합한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시기의 동료관계는 상호간의 지지와 정서적 안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시기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의사소통역량이다.

최근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선순위로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채수정, 연석정, 박경옥, 김경양, 2020; 최다영, 한경임, 2021). 의사소통은 발달기 또는 성인기에만 국한되는 과제가 아닌 모든 삶의 생애주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필요한 권리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제한적인 의사소통 특성은 사회참여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전 생애에 걸친 장단기 목표 설계 및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과 지역사회 참여 증진 방안, 교육에 대한 접근과 사회적 장벽을 낮추기 위한 장애 공감 문화를 증진하는 측면에서 유니버설디자인에 입각한 보편적이고도 일반화된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방안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해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의사소통 접근장벽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과 관련한 유니버설디자인을 4가지 주제 중심으로 살펴보고 주제별 적용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방안

「UN 장애인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의 내용에는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누리도록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협약에서는 ‘의사소통’을 문어, 음성언어, 단순 언어, 낭독자 및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을 포함한 보완적이고 대체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뿐만 아니라 언어, 글자표시, 점자, 촉각을 통한 의사소통, 대형 인쇄, 접근가능한 멀티미디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 21조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의사표현과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보장에 대해 언급하였다. 특히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AC), 그리고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AAC를 활용한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은 발달장애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광범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박은혜, Snell & Allaire, 2004; 이희연, 홍기형, 2015).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사회성, 행동 문제는 각각 분리된 장애 개인의 결함이나 문제보다는 장애인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주는 어려움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방안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사소통 권리 향상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의사소통 권리는 인권의 측면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의사소통을 통해 그들의 생활 환경 조건들에 변화 및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서원선, 김경양, 이선화, 2020). 이러한 맥락에서 ASHA에서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표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NJC website at: www.asha.org/njc).

<표 1> ASHA에서 제시한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
1.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사회적 접근성을 유지하며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권리
 2. 요구하는 물건, 행동, 사건, 사람 또는 선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요구하지 않는 물건, 행동, 사건, 사람 또는 선택을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
 4. 개인적인 선호성과 기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

-
5. 의미 있는 대안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
 6. 의견을 말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
 7. 일상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할 수 있는 권리
 8.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사건 또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야 하는 권리
 9. 의사소통을 향상하는 중재 및 지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10. 의사소통 법률, 의안을 가지고 이를 토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권리
 11. 적절한 AAC 및 기타 보조기술 서비스 및 장치에 항상 접근할 권리
 12. 동료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완전한 의사소통파트너로서 참여를 촉진하는 환경적 상황, 상호작용 및 기회에 접근할 권리
 13.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와 존중과 예의를 지켜 대하여 저야 할 권리
 14. 스스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 및 타인의 대변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
 15. 명확하고 의미가 있으며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권리
-

위의 의사소통 권리에 기본 전제되어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등한 사용’으로 의사소통능력이 다양한 발달장애인 누구라도 의미 있는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기회 접근권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사용상의 유연성’으로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에 적합한 도구와 지원, 중재를 제공받을 것을 권리에 명시하고 있다. 셋째, ‘정보이용의 용이’로 발달장애인의 지각 능력이나 주위의 조건에 구애되지 않고 필요한 의사소통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의사소통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인식을 조사한 선행연구(김정연외, 2021)에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의사소통 권리 정보에 대한 정보제시 측면에서도 상징 등을 활용하여 [그림 1]과 같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의사소통은 발달장애인이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적응하도록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내용에 초점을 두어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노력은 교육기관이나 가정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김정연 외(2021)의 연구에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현황 중 일상생활에서 확대되는 친구, 직장 동료, 낯선 상황에서의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사회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지속적인 훈련과 지원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체계, 정책, 기기 지원 등의 개선방안이 제안되었다.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익숙한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 및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성공률은 비교적 높으나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지역사회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훈련과 지원을 통해 사회적 상황에 따라 최대한의 감정,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환경을 유니버설디자인에 따라 의사소통에 대한 장벽이 낮고 다양한 사용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융통성 높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 AAC 상징으로 제작된 의사소통 권리 현장

의사소통권리현장				
우리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친밀감을 유지하며, 관계를 만들 권리	원하는 것을 요구할 권리	원하지 않는 것을 거부할 권리	선호하는 것과 감정을 표현할 권리	의미 있는 대안을 선택할 권리
				
의견을 나누거나 말할 권리	일상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얻을 권리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얻을 권리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중재 및 자원에 접근할 권리	원하는 결과를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사소통을 인정하고 응답받을 권리
				
AAC 및 보조공학기기 및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또래나 다른 사람들과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환경적 맥락, 상호 작용 및 기회에 접근할 권리	존중되고 호의적으로 대해질 권리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는 타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자신에게 말하도록 대해질 권리	명확하고 의미 있고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절한 의사소통방법을 가질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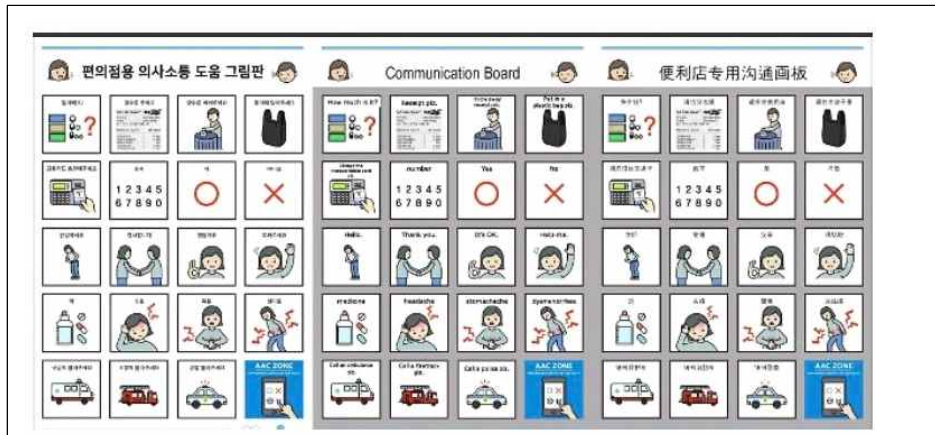
* 출처: National Joint Committee on the Communication needs of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NJC)
<http://www.asha.org/njc/>

다음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AAC지원 방안의 예이다. 글자와 그림으로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는 AAC존을 만들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의사소통 장벽을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지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문해력 발달 이전의 유아,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도 의사소통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이용하기, 위기에 도움 요청하기 등 의사소통 필요성이 높은 영역을 정하여 [그림 2]와 같이 의사소통판을 만들어 활용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그림 2) AAC존에서 활용되는 의사소통판



출처: <https://blog.naver.com/kead1/222134403974>

이와 같은 지원방안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정보이용의 용이’를 가능하게 하여 자신이 방문하는 지역사회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정보를 장애인 당사자에게 유용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림 3) AAC 존에서 정보이용의 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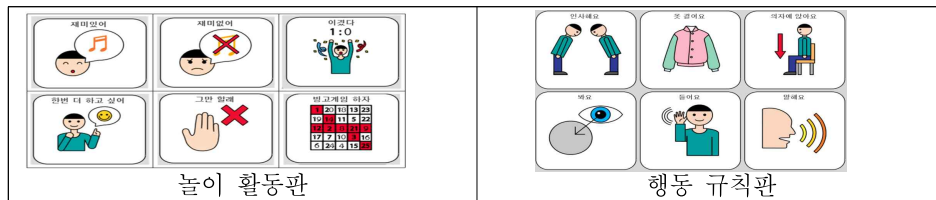


출처: <https://blog.naver.com/kead1/222134403974>

3. 수업에서 의사소통 참여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장애학생의 수업참여를 위해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하다. 유니버설디자인에서 유래한 UDL은 장애학생 뿐 아니라 학습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보제시수단, 다양한 참여수단, 다양한 표현수단을 교수학습과정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려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교수학습과정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 학습자와 교수학습자료 간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UDL 원리에 따라 지원이 적용되어야 한다. 첫째, 다양한 정보제시수단 제공 측면에서 수어, 상징과 같은 시각자료, 나레이션이나 TTS와 같은 청각적 보조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그림 4]는 AAC상징을 사용하여 시각적 스케줄과 행동 규칙판을 만들어 장애학생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 예이다.

(그림 4) 놀이활동판과 행동규칙판 예시



(그림 5) AAC상징을 활용한 일기쓰기 활동 예시



출처: 박은혜, 김영태, 편성범, 남세현, 임장현 (2013).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중재서비스 개발(1차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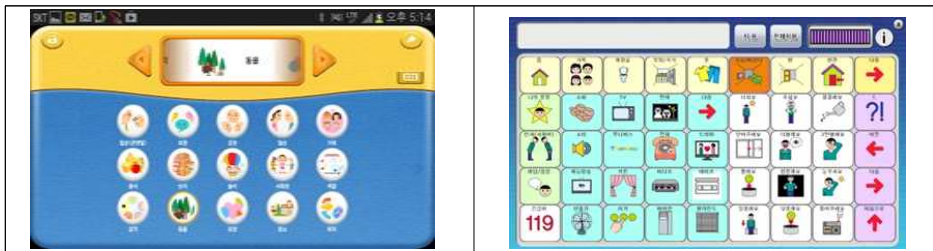
둘째, 다양한 표현 수단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학습자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와 학습한 결과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5]와 같이 문해력이나 학습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AAC장치를 활용한 일기쓰기 활동이나 학습지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 장애공감 문화 증진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방안은 당사자 중심의 의사소통 지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비장애인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즉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소통 역량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가족, 서비스 제공자와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정보, 교육, 훈련 및 자원을 제공하는 실행방안이 요구된다. 발달장애인의 개별성을 존중하여 현재의 의사소통 수준 또는 역량을 최대한 인정, 수용하면서 발달장애인이 의사소통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발달장애인이 접하는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비장애인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개발된 AAC앱이 의사소통 장면에서 활발하게 사용된다면 우리 주변에서 휠체어, 보청기 등의 보조공학기가 익숙하듯 좀 더 친숙한 방식으로 대안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림 5) AAC 앱 (나의 첫 AAC, 마이토키)



III.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사회생활 및 학업참여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한 의사소통 지원방안에 대해 탐색하였다. 첫째, 의사소통 권리 향상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에서는 의사소통 권리 안에 내포된 유니버설디자인 원리를 살펴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였다. 동등한 사용과 사용상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소통 권리 접근성이 높아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에서는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의사소통장벽을 낮추기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방안을 살펴보았다. 국내 AAC존과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사회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개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수업에서 의사소통 참여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에서는 UDL의 특성 중 다양한 표현수단과 다양한 정보제시 수단을 제공하여 학습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장애공감 문화 증진을 위해 AAC앱 활용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과 관련한 유니버설디자인 측면을 AAC에 한정되어 서술하였다. 앞으로 지속적인 확산 연구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의 원리와 특성을 반영하여 우리 사회에서 의사소통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들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6). 특수교육 통계. 세종: 교육부.
- 김정연, 박은혜, 표윤희, 김경양, 연석정, 안나연, 장현아 (2021).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보건복지부
- 박은혜, Snell, & Allaire (2004). 언어장애인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용 어휘상징체계 수립에 관한 문헌연구.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9(3), 118-138.
- 박은혜, 김영태, 편성범, 남세현, 임장현 (2013).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중재서비스 개발(1차년도).
- 박정애, 박은혜(2020). 그림상징을 활용한 이야기 읽기 활동 중재가 초등학교 저학년 발달장애학생의 철자지식과 수업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보완대체의사소통연구*, 8(2), 1-28
- 서원선, 김경양, 이선화(2020).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증진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이희연, 홍기형(2015).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글자판의 단어예측기능에 대한 뇌병변 장애인 대상의 사용성 평가.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9(3), 209-214.
- 채수정, 연석정, 박경옥, 김경양(2020). 중도 비구어장애인을 위한 AAC 어휘 및 그림 상징 개발: 인권, 피해, 지역사회 의사소통 상황을 중심으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구 중북·지체부자유아교육), 63(2), 119-140.
- 최다영, 한경임(2021). 삽입교수를 활용한 AAC 중재가 헌터증후군 중학생의 의사소통 행동과 자발적 발성에 미치는 효과.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구 중북·지체부자유아교육), 64(1), 155-184.
- 황보옥, 이선자(2012). Q방법을 활용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종사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의 유형화. *노인복지연구*. 1(56), 165-190.
- 황승욱(2014). 발달장애 청소년/청년의 홀로서기 위한 자립전환교육 캠프 만들기. 창원: 한찬코리아.
- www.asha.org/njc
- <https://blog.naver.com/kead1/222134403974>